

차마 못하는 마음(不忍之心)

“Mind that be can not bear to”

- 6·25 때마다 생각나는 일, 나의 스승 賢甫선생 이야기 -

啓星紙の歴史博物館

館長 曹亨均

02-3668-6708

이를 잡고 앉았는 백발의 과학자

어처구니없는 민족상잔의 비극 6·25를 맞이할 때마다 나에게서는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영상 하나가 있다.

때는 1951년 1월 중순경? 곳은 부산 영도 바닷가에 자리한 수산시험장 근처 마룻바닥인 창고 같은 허름한 건물 한 채. 거기에 당시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자연과학자 약 50~60명이 모여 제각기 찬 마룻바닥에 요나 담요를 깔고 앉고 놓고 이불에 비스듬히 기대고 하면서 뭉개고 있었다.

중년을 훨씬 넘은 반백의 노신사 학자에서부터 대학을 갓 나온 애송이들까지—아침에 줄을 서서 인근 바닷가에 있는 수산시험장 자리를 접수해서 쓰고 있던 국방부 병기행정본부에 출근이랍시고 했다가 별 하는 일 없이 점심을 축내고 지껌이다가는 다섯 시가 되면 영락없이 또 줄을 서서 돌아와 두 사람씩 짝이 되어 돌아가면서 하는 식사당번이 해 놓는 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치우고 나면, 무료하기가 짝이 없는 겨울밤. 거기 구석에서 홀로 이를 잡고 있는 백발의 중년 한 분이 있었다.

기나긴 겨울밤. 자연과학자에게 악인은 없다 할까, 좁은 공간에 뻘뻘이 자리를 펴고 복석대는 공동생활이라 서로 조심하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 하지만, 제각기 사생활의 습관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지라 가끔은 본의 아니게 실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자 어느 누구의 입에선가 그린 장면을 원만히 꾸며하고 넘어가는 그 합숙 공간의 익살스런 전용 유행어(?)가 하나 생겼다. “좋아 좋아!” 라는 말이 그것이었다. 이로써 실수한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도록 얼버무리진다.

갑자기 시작된 피난생활이고 아직 자리가 안 잡힌 탓도 있었겠지만, 지루하고 무료한 숙소 내에서 되도록 명랑을 유지하리 갖가지 유희기 튀어나오고 자못 외견상 분위기는 웃음꽃으로 즐겁기만 하였다.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었다. 각자의 속사정은 어땠는 간에 말이다.

그 숙소에는 해방된 신생 대한민국의 초대 국립공업연구소 소장인 위동혁 박사(후에 상공장관, 현재 92세)를 정점으로 하여 주로 화학 계통 학자들만이 따로 북고 있었던 것으로 하는데 50년 5월 11일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풋내기인 나도 몇몇 같은 또래들과 함께 후발대로

지병되어 내려오느라고 한 일주일 도작이 늦었지만, 그렇게 걸으며 보아서는 병당하기만 한 분위기에 휩쓸리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반백의 하얀 머리를 한 중년의 과학자 한 분이 작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나타났던 것이다. 최후의 합류자인 모양 같았다.

구석에서 부스스 옷을 벗고 속옷을 갈아입은 그는 벗은 속옷을 뒤집어 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별로 그 광경에 신경 쓰는 이도 없고, 일부러 붓 본 척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분위기였으니 그런 인품은 이번 피난길에 모두가 겪은 일이라 별 신기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망정 그야말로 속옷을 털면 이가 서말인 신세들 모두가 경험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 백발의 과학자 한 분! 그 분에게는 그러나 기막힌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전쟁이 끝난 훨씬 뒤 서울에서 그분의 제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우연히 알게 되었으니 그때 그 합숙소에서 너무도 철없이 무심했던 것 같은 생각에 송구스런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것이다.

현보(賢浦) 선생

공업연구소는 그때만 해도 국내 유일무이한 공업기술에 관한 국가의 연구·지도 기관이었다. 그것 말고는 보건 위생 계통의 국립화학연구소라는 것이 있는 정도였다. 공업은 기계과, 요업(窯業)과, 무기화학과, 유기화학과, 염직과, 식품화학과 등등 주로 우리나라 공업 제조분야를 맡고 있는 연구 지원기관이었는데, 종지에 전쟁이 터지니 순박한 자연과학자들이 공산치하 수도 서울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더러는 희생된 분들도 적지 않다.

9·28 수복도 얼마 아니 되어 다시 전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국방부 병기행정본부(당시 본부장

은 이종찬 육군소장) 산하에 과학기술연구소가 생겼다. 제1과에서 제5과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제3과는 주로 화학계통 인력이 집결되어 있던 부서이다. 부랴부랴 만든 국방부 과학기술연구소의 아이디어는 당시 공업연구소와 깊은 인연이 있던 C모 중령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대한민국의 귀중한 인적자원인 과학기술자들의 신변을 보호할 점 전쟁에 대비한다는 뜻에서 육군 문관 발령을 내고 규합하게 되었으니 주로 공업연구소의 연구진과 공과대학 교수들과 분리대리와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3과의 경우, 과장은 당시 문리대 화학과 C모 교수이고 연구소 건물은 우선 종로5가에 있던 광업진흥공사(?) 연구시설을 집수하여 들어갔다. 그런데 인원 확보가 되자마자 연구실 배정도 받기 전에 긴급히 남쪽으로 이동을 위한 짐을 싸는 것이 인의 전부였으니 그것이 이른바 1·4후퇴의 일환으로 견행되었던 것이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고급 인적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국립공업연구소 역시 피난 짐을 싸자니 소내는 온통 뒤숭숭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철수 요령은 주요 기자재 기타를 인단 트럭으로 영등포역까지 가져가 거기서 철도수송 차량을 배정받아 국간차에 짐들과 함께 몸을 싣고 부산을 향해 내려간다는 것이었다.

출발 날씨가 박두하자 직위가 공업연구소 소장 다음 자리에 있던 현보 선생을 위해 C중령이 특별한 신경을 써주는 것이었다. 그가 한 발 먼저 긴급히 출발하면서 인사차 현보 선생 앞에 나타나더니 전속 부관(육군 중위?)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어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보배신데 귀관이 책임지고 철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돌봐드리는 일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특별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현보 선생은 왜정 때 서울 고등공업(현 서울공대)을 나와 공업연구소 전신인 조선총독부 중앙

시험소에서 연구에 몰두해온 최고참 중의 한 분이었다. 한동혁 박사와 더불어 박사다식의 수재이며 강력한 선비였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저녁때가 다 되어 방에서 나와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게 웬일인가? 약 300개가 넘는 사과 껍질이 즐비하게 현관 앞 길 채에 놓여 있는데 겨울바람에 더러 하늘거리는 신문지에 덮여 있지 않은가? 돌춰 보니 공업연구소의 배대기 되는 귀중 문헌들이었다! 이것이 이렇게 임자 없이 내놓음이 쳐 있다니.

현보 선생은 정신이 번쩍 들어 그 길로 소관 부서인 서무과에 가보았다. 거기는 아무도 없었다! 다 벌써 가버린 것이다. 이리저리 다녀봐도 사람 구경 하나 할 수 없는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겨울 해는 벌써 지기 시작하는데 이 임사 잃은 귀중 문헌들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옛다 모르겠다! 모두가 그렇게 되 뇌이며 내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과학자의 양심상, 그리고 국가 공무원의 양심상 그 앞을 도저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다. 분명 자기의 소관사항이 아니니 하는 뻔지르한 자기 합리화에 빠질 그가 아니었다. 이를 어쩔남! 그의 밝은 거기에 뜻이 박혔다.

아까 그 C중령의 전속부관 생각이 났다. 하지만 그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그의 도움으로 그 300여 사과껍질을 영등포역까지 수송할 방안을 상의하려는 생각은 이미 허사였다. 나중에 그분이 회상하는 말에 의하면, 결국 그 전속부관은 비슷한 말을 특무상사에게, 특무상사는 중사에게, 중사는 하사에게... 이렇게 하여 C중령의 특별 당부는 형식상 아래로 아래로 떠넘겨지면서 호지부지되고 막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세각기 자기몫 행기에 바쁘지 그런 지시사항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늦게야 근처 동승동 관사에 대기하고 있는 가족에게로 달려갔다. 정상적인 스케줄대로라면 이제 기차를 데리고 아바 영등포역 이디으로 집합해서 같이 부산행 피난길을 떠나면 되는 처사였으나, 참으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인종의 사형선고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별도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 그저 하루라도 더 살려거든 여기를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니 그렇게들 하라”고, 피눈물을 머금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잣돈 인부를 떼어서 주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연구소로 돌렸다. 한없는 고생길의 시작이었다.

굽으면서 대구역까지

친신반고 끝에 사방에 수소분하여 트럭을 얻어 그 많은 짐들을 영등포역까지 가까스로 혼자 옮겨놓을 수는 있었다. 영등포역에 짐을 부린 첫날 밤, 그래도 기대를 걸고 영등포 육군 조병창 분소엘 찾아갔을 때였다. 워병소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사무실이 보이는데 전깃불이 흰하게 밝고 스토브가 새빨강게 달아올리 있는데 그 옆에 썰가마니 두 개가 포개어져 있었다. 그리고 육군 중원가 내워 한 사람과 사병 몇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 것이 뻔히 보였다.

군이 공업연구소 직원을 전서 동원으로 징발하였고 그 귀중 물자들을 옮기는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이면, 디군다나 백발의 점장은 아버지뻔 되는 신사가 그저 하룻밤을 거기서 추위를 면하고 가겠다는데 우선 보조부터가 박부가내었고, 도도한 그 장교는 몇 번이고 사정하는 그분을 일언지하에 거전하고 말더라는 것이다.

눈발은 휘날리고 바람은 찬대 갑자기 갈 데는 없고 어디에 이관이 붙어있는 지도 모르겠고 임동선한 겨울밤에 얼어붙는 발을 길에서 뚱뚱 굴린 생각을 하면 그 후에도 몇 번인가 이가 갈리더라고 후에 슬회하시느 것을 들었다.

짐을 영등포까지 옮기는데 2~3일. 그리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 짐을 지켜야 하기에 무조건 땅을 보디시피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난장판. 그러나 정거장을 떠나 따듯한 여관방 속에라도 가 있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벌써 쥐꼬리만한 노자는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4~5일 후에야 화물열차는 떠났다. 이를 악물고 고생한 보람에 그래도 차를 놓치지 않고 용케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길이 막막했다. 그야말로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인 것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장도 만난 사람을 보고 차마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사서 하는 이고행길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그보다 바로 며칠 전에 나도 비슷한 처지로 화물열차에 몸을 실어 봐서 알지만, 그때 그 철도 수송이라는 것은 참으로 행편없었다. 철도역에서는 것이 아니다 아무데서나 마음 내키는 대로 가다가 서다가 하는 판국이니, 부산까지 일주일이면 잘 가는 편이었다. 내 체험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데, 그나마 노자 한 푼 없이 타셨으니 그 고생이 어땠으랴. 대구까지 세댓대로 서다 가다 하는데 4~5일, 그렇다고 도중에 문을 열고 내릴 수도 없는 신세다.

간신히 대구역까지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산 속 장 간이 되었다. 차에서 내려 오줌을 누니 간장 빛 오줌이 나오더라는 것이고 불조차 마시지 못한 굶주린 배에 변이 들 같이 굳어 젓가락으로 향문을 파냈나 한다.

전체 전병, 이제는 더 이상 그 차가 다시 떠나든 말든 운명에 맡기고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사력을 다하여 영급영급 기다시피 하여 찾아가기로 한 곳은 택시로도 한참 가야 하는 김신동이라는 곳이었다. 성한 사람도 걸어가기에 어려운 곳인데 그 허기진 몸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심정에서였다. 젊어서 왜정 때

고공(현 서울공대)을 졸업하사 셀룰로이드 안경테를 개발해 주어 훌륭한 기업을 이루게 함으로써 친구처럼 지내는 집에 가서 밥 한 술 일이 먹고 노잣돈도 얻을 양으로 견행하는 마지막 카드 같은 일이었다란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가서 문을 두들기니 하필 이번 그 친구는 없고 부인이 나타나지 않는가. 어느 초상집일 가느라 출타중이라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그런데 뜻밖한 선비 체면에 차마 그 부인에게 노잣돈 좀 달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 잠자코 발길을 돌렸다.

사람의 목숨이란 어느 집 모질다면 모진 것이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죽지 않고 다시 천신만고 대구역에 돌아와 보니 화물열차는 그대로 서있디란다. 그래서 또 며칠이 걸려 빈속으로 부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초량역에 닿았다. 이불 악물고 짐 두 개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대형 트렁크는 공업연구소의 귀중한 당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알짜배기 기사재들로 가득 채운 것, 예쁜 들면 백금 도끼니 같은 것들이었다. 이것도 눈이 그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혼자 남아서 챙기신 것이다. 그리고 작은 트렁크는 자기의 속옷 같은 것을 넣은 사물. 트렁크 둘을 사물로 채워 양손에 들어도 모자랄 터인데 그분의 마음씨는 그러했다.

그런데 역전 왼쪽 편에 식당 앞을 지나가려는데 확 하고 국밥 냄새가 코앞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며칠을 허기진 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거의 무의식중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무조건 국밥 한 그릇을 사정했다. 전장은 백발 신사의 모습을 보고 딱했던지 순순히 응해 주었다.

정신없이 퍼 넣고 인사불 하고 나오려는데 아빨싸, 이게 웬일인가! 애지중지 모셔온 그 부거운 대형 트렁크가 온데 간데 없지 않은가! 참으로 불려(不慮)의 큰 실수였다. 그렇게 고생한 보람



도 없이, 그러나 큰 트렁크를 도난당한 것은 차라리 그분에게는 축복이었던지도 모른다.

그 앞에 가로막은 영도다리로 통하는 큰 자동차 길은 오래 민간인들에게는 통행 제한이었고 길을 건너 언덕까지 좁은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걸어가야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 밤중에 나다른 곳이 그 별천지 같은 합숙소의 광성이었다. 아무도 그 기막힌 사연을 눈치조차 못 채고 있는 무심한 그 한패들 속에 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다음날 아침 그분은 홀로 앉아 이불 잠고 있었다!

그 후의 현보 선생-청백리의 고난

청백리(淸白吏)라는 말이 있지만 연구실에 붙혀 있는 그분은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은 청백리 중의 청백리였다. 청렴으로 인관하신 그분은 사를 버리고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에 스스로를 불태웠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관대, 인지하시고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셨다. 부정을 모르는 그분은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막대한 희생율을 안겨줬다. 그 어른의 진광이 제지화학이였기에 환도 후 얼마 있어 유기화학과 방 하나에 '세지연구실'을 차려놓고 61년 봄까지 모셨던 나는 「씨알의 소리」 제115호, 1990년 8월 참조), 가까이 그 진면목을 접할 수 있었다.

박하 강기(強記)로 유명한 현보 선생은 가히 국립공업연구소의 간판적인 학자로서 당시의 우리나라 공업계의 기술분체들을 한 봄에 안고 계신 격이었다. 많은 공업인들이 답답한 현장의 기술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선생님을 찾아 적절한 도움을 받고 갔다. 63년 이후 공업연구소 제3대 소장으로서 계시던 시절 그 소장실 벽에는 약 30개의 감사장들로 꽉 차 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가난은 여전한였다.

그분은 퇴근시간에 맞추어 퇴근하시는 일이 없었다. 으레 밤 아홉시나 열시가 넘어서야 퇴근

하시는 이유 중 하나를 나는 처음에는 몰랐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사모님 대하시기가 번거스러워 일찍 안 들어가신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그렇게 정성껏 지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고생하는 가족들이 안쓰러워 한 번은 이렇게 절없는 소리를 반 농담 삼아 드린 일이 있었다.

“선생님, 그렇게 요긴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디도 말고 천 원씩만이라도 받으시지요. 그냥 가르쳐주시니 그들이 그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락이 떨어졌다. “거 무슨 소리야! 그분들이 여기서 해결 못하면 달리 어디 가서 해결하겠는가!” 나는 그 어른이 그렇게 몹시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낙후된 한국의 공업수준을 한 여객에 짊어지시고 계시는 스스로의 사명감과 강자의 나타남이었다.

현보 선생은 조선조에서 대대로 당상관 벼슬을 지낸 명문 가문이었다. 부소장 격으로 계시던 시절 지당계서 별세하셨는데 그 당시 드문 5일장이었다. 장례비가 막막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인환 상공장관이 분상을 왔다가 돌아 나오면서 회를 차며 혼잣말을 흘렸다. “공업연구소 기감(技監)이면 정부의 이사관 급인데 이게 뭐람! 그분 눈에 비친 것은 그 넓은 관사 응접실의 바닥은 다다미를 다 걷어낸 대패질도 하지 않은 널빤지 틈이 송송 벌어져 있고 거기에 널빤지에 다리 내 개를 갖다 붙인 박죽수 집 긴 의자 두어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삼성의 이병철 씨가 세 가지 마운드로 못하는 것 중에 미워를 잡아먹지 못한 것이 그 하나라는 말이 돌고 있는 무렵이었다. 미풍과 미원이 크게 무슨 일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런 때는 자연 공업연구소 같은 데에 외풍이 있게 마련이다. 힘센 쪽이 공업연구소의 관정이나 의견을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무렵 하루는 찾아되었더니 그 말씀을 하시며 혼잣말처럼 불쑥 내뱉으시는 것이었다. “나 여태까지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4·19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연구소의 수많은 관사들에 대한 불하선이 나뉘더니 파구 물밑에서 진행되어 갔다. 요령 좋은 사람들, 연구소 주사까지도 모두 한 채씩 타고 앉은 관인데 유독 그 어른만이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250평 가까운 대지의 그 관사를 그분만이 내놓으시고 당시 인분 냄새 풍기는 삼양동 관자촌으로 30만원 을 주고 이사하셨다. 그것을 안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조금의 돈을 모아 마련해 드린 것이 수유리 국민주택이었는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장공 선생 맥과 나란히 바로 옆집이었고 81년 6월에 안으로 77세의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거기서 사셨다.

4·19가 나던 해이던가, 만파님이 서울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금을 해결할 길이 없어 입학 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서 「사상계」만 본다는 것이고 방학 철이 오자 대학에 진학한 농창들과 농촌 계몽에 나갔다. 과연 부진어전의 핏줄인가 싶었다.

선비, 현대과학의 깊은 세계를 소요하시면서도 한학과 한의학에 조예가 깊어 웬만한 한의사를 쨌쨌 매게 하였고 불교신앙에 조예가 깊은 그분은 언젠가 빈사일등(貧者一燈)을 말씀하셨다.

함 선생님은 언젠가 맹자를 말씀하시면서 군자의 不忍之心을 “자아 못하는 마음”이라 새기셨다.(맹자, 양혜왕장구 상) 그 착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엄청난 민족의 수난기에 홀로!

그 후 정부에 자리가 잡히자 별채를 짓고 농업 도서관이라는 것이 생겼다. 하지만 가족의 안위 보다는 유일한 국가 연구기관의 신경 줄인 과학 기술문헌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여 홀로이 남아

서 고행한 난세의 지성독행(至誠篤行)이 아니었던들 그 집은 별 분일 없는 빈집테기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Beilstein, Chemical Abstracts, 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그리고 또 수많은 Journal of..., 이것들은 모두 돈으로 산 수 없는 귀중한 정기간행물들이기 때문이며, 요행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궁핍한 정부 예산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니 그간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꾼단 말인가.

연구소 직원들은 손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할 관이니 상상만 해도 오싹해진다. 아닌게아니라 피난시절 그 임시 수도 부산의 이금도 허울 좋은 국제시장 골목 길가에 앉아 있는 고춧가루 깨소금 장사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손에서 북북 찢겨지는 귀중 문헌들의 수난을 그분은 직접 목격하시고 간개부랑하시더라는 말씀을 들은 인 이 있다.

현보 선생, 이범순 박사님,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깃들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때 묵묵히 고군분부하며 민족의 위급을 구하신 수난의 실천공행인이 총부궁이었다면, 20세기 한국의 이 비극의 수난사에서 혼자 북북히 실천공행하여 나라의 한 모퉁이를 지킨 현보 선생은 또 한 분의 총부궁 같은 분이 아니겠는가.

고 장공과 현보, 수유리에 담 하나를 사이하고 이웃해 사시던 두 어른의 생애는 내 마음의 양식이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면, 지금도 가끔 현보 선생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함 선생님을 위시하여 세 분 선생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음을 과분한 은혜로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수리가 뜨거워진다. 네 신을 벗으라고.

씨을 과 고난

6·25 민족상쟁의 뜻은 무엇이였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끔찍스런 매질을 주셨나? 우리는 이 처절한 민족사의 비극의 뜻을 얼마나 곱씹으며 살아왔던가? 그것은 왜 왔으며



우리는 그 물음에 얼마나 바르게 대답하였는가? 대답하려고 힘이라도 썼는가? 예인사 함석헌의 절구 “생각하는 백성이리라 산다”에 대하여 당시의 관현은 무엇으로 그에게 대답하였는가? 그 필화사건은 외로운 그분만의 고난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것이 민족 차원의 역사체험이며 고백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철없고 무지 무신경하였다.

IMF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의 불운의 답안지를 옳게 작성하였더라면 이것이 왔을까? 그것은 노답없이 갑자기 닥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에는 예능리가 없으며 그 민족사의 고난의 고비마다 으레 씨름들이 고생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중이라고 다 씨름이며 민중만이 씨름인가? 자각해야 씨름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한 날 부의미한 육의 고난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씨름의 고난은 아니다. 씨름은 주어진 육의 고난을 말씀으로 터쳐 거둬나야 씨름이다.

함석헌이 ‘씨름의 자기교육’ 운동을 벌이자고 한 것은 그래서였다. 의식했던 안 했던 이 씨름들에 의하여 요반쿰이나가 이 어지러운 사회 인식이 지탱되고 멸망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씨름은 한낱 계층 구분의 용어인가? 어찌 보면 소속 계층은 그 자신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복수의 아들로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들과 복수의 아들은 모두 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이다. 거기 씨름이 영글어 열매 맺혔을 때 그 하나님 아들이라 복수의 아들이라를 깨뜨리고 본래의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열매 맺은 씨름들의 자기희생의 고난행으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다소라도 속량되는 것 아닐까? 그런 뜻에서 현보는 한 알의 씨름이었다.

씨름은 전체 생명 안의 한 알이지만, 전체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역설적이게도 다름아닌 낫 씨알들에 의해 그 씨알들 안에서 고난 받음으로써 그 씨알들 생명 속에 들어가 씨름을 불러 일으켜 한 씨 로 연결된다.

엄밀히 말해 을알과 씨알 사이에는 슬픈 단절이 있다. 이것이 씨름의 실용이요 고난이다. 씨름의 고난과 죽음이 낫 씨알들로 하여금 씨알로 깨어나게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씨름은 중(衆) 안에 있으며 중우(衆愚)를 조월한다. 그 중우에 의하여 수난 받고 회생됨으로써 그 우(愚)를 벗겨 눈뜨게 한다. 하지만 그 ‘우’를 벗기는 현(賢)은 하늘의 ‘현’이지 이 세상의 현이 아니다(고린도전서 1:18~, 특히 25절).

노동자 진태인의 죽음이 씨름의 죽음이 된 것은 그래서 된 것이다. 여기 생명의 신비가 있다. 선비의 차마 못 하는 마음은 의식하는, 볼 것을 보는, 찌르는 양심의 소리를 하늘 말씀으로 알고 거기 복종하는 마음이다.

현보. 그도 불운 하나님 앞에서는 죄 많은 인간이었으리라. 하지만 적어도 그의 공생애의 모습은 임연히 세속과 한 금을 갖고 있었다. 현인인 그의 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바뀌었을까? 그 지극한 정성과 차마 못하는 마음은 하늘이 그를 붙잡아서 하시는 일(은혜)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여기서 교회적 도그마의 형식논리는 무색해진다. 나는 크리스천이로라 하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노라고 하는. 하지만 구원은 씨알들을 향해 생명을 버릴 때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앞서간 현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늘! 모든 이 세상의 형식으로서의 종교의 웃을 떠나서, 神向聖然 人對誠然 己對嚴然 謀對超然 事處毅然 去時默然. 복념, 합장.

※ 출처 : 「씨름마담」 제22호, 1998년 6월
| 기술표준 2008.11